

개관 28년 광주문예회관 확 바뀐다

대극장 객석 100석 줄이고
공연장 전용의자로 교체
조명·음향장비·주차장 등
2022년까지 대대적 개·보수
249억 예산 확보 관건

광주문화예술회관이 개관 28년 만에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문예회관은 총 사업비 249억원(국비 20억원·시비 229억원)을 투입해 올 하반기 대극장 좌석 교체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 말까지 4년에 걸쳐 시설 개·보수를 단행한다. 문예회관 한 해 운영예산이 326억원인 점을 참고하면 1991년 개관 이래 가장 큰 사업 중 하나다. 내년에 대극장 조명과 음향 등 무대 장비를 교체하고 2021년에는 소극장 내부 시설과 무대장비를 바꾼다. 2022년에는 기계장비 교체와 주차장 정비를 진행하며 사업을 마무리한다.

문예회관은 뒤떨어진 무대설비와 장비 소음, 불편한 객석, 본진이 떨어지는 천장 등 여러 문제를 낳아 공연 기획사와 클래식 애호가들로부터 '공포의 공간'이 됐다.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생긴 잦은 고장으로 안전성 문제도 불거졌다.

회관은 지난 2013년부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과 공연장 건축음향 컨설팅 용역을 진행했으며 매년 한 달 정도 장비 수리와 부품교체 작업을 위해 10억원의 보수비용을 지출해왔다.

첫 용역을 추진한 지 6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리모델링에서는 대극장 내부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첫 단추를 꿰는다.

올해 대극장 리모델링 범위는 무대와 객



광주문예회관은 올해 하반기 대극장 무대·객석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전반적 개·보수 작업에 들어간다. 대극장 전경.

석을 비롯해 벽체·천장·전기·소방·로비 등이 포함된다.

가장 반가운 소식은 '객석 교체'다. 28년 동안 바뀐 적 없었던 객석은 좁고 삐걱거릴 뿐더러 악취까지 나 원성이 자자했다. 그동안 관객의 평균 체구가 커지면서 불편함이 커졌다는 것이 회관 측 설명이다. 2층은 발코니 폭이 넓은 탓에 1·2열에서 무대 시야가 확보되지 않기도 했다. 회관은 전체 1722석에서 100여 석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최적의 음향 환경을 위해 객석 공간 형태를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객석에는 안락함과 내구성을 갖춘 공연장 전용의자가 쓰일 예정이다.

객석 외 영역의 변화도 상당하다. 먼저 음이 반사되는 벽 면적이 최대한 넓어지도록 하고 무대 전면은 반사재·후면은 흡음

재 처리한다. 음향 시뮬레이션(모의 실험)을 거쳐 소리가 전 객석에 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측면과 객석 바닥 구조도 바꾸며 냉난방 장치도 교체한다. 조명·음향 시설의 무게 500kg을 견뎌야 하지만 수동으로 구동해야했던 배튼(batten)과 무대 전 환장치를 전자동화하며 회전무대와 주무대 리프트의 고정식 변경 여부도 결정한다.

문제는 예산이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상 문예회관 1곳당 한 해 20억원으로 국비 지원이 제한된 탓에 "아예 새로 지어야 할 판"인 리모델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회관은 지난해 리모델링을 전담할 건축직 1명(6급)을 시에 요청했으나 이는 반영되지 않았다.

박석호 회관 무대2팀장은 "올해 예산은 35억원이지만 의사 한 개당 최고 100만원

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객석을 교체하는 데만도 살림이 팍팍하다"며 "객석과 공기조화시설 교체 중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회관은 올 하반기 추경편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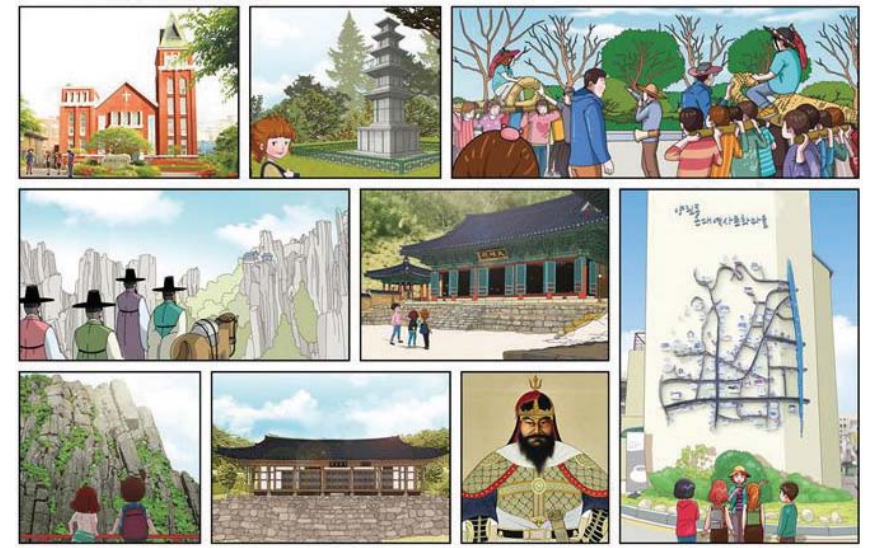
다음 달 첫 개방형 문예회관장 도입을 앞둔 회관은 오는 3월 리모델링 설계 입찰 공고를 낸 뒤 3~4개월 동안 설계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7~8월에는 시공 입찰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객석·무대 철거작업에 들어간다.

한편 광주시립교향악단 등 문예회관에 상주하는 8개 시립예술단체들은 올 하반기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남대 등 인근 공연장에서 정기·수시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웹툰으로 만나는 광주 역사·문화 100선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출간...무등산·농장다리 등 답아

웹툰으로 광주의 100가지 이야기를 만난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백수인)은 최근 광주의 역사와 문화, 자연에서 뽑은 100개의 이야기들을 모아 '광주 역사문화자원 웹툰100'〈사진〉책자를 출간했다.

광주지역의 유·무형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역사교육, 관광, 문화콘텐츠로 활용가능한 100개의 이야기를 웹툰으로 제작해 '광주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누리집(gistory.or.kr)으로 공유해온 재단은 이번에는 책에 콘텐츠를 담았다.

광주시의 '광주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구축' 지원사업으로 만들어진 이 책은 역사문화자원을 소재로 한 웹툰 100편을 한 권에 담았다. 무등산·농장다리·만귀정 등 100가지 소재를 다룬 웹툰은 '묵묵히 버틴 산천과 초목', '어환이 깃든

다리'와 '고개', '삶이 녹아든 도로와 거리', '활력 가득한 시장과 공원' 등 10가지 주제별로 실렸다.

광주의 다양한 콘텐츠를 담은 지도도 함께 제작됐다. ▲1872년 고지도 ▲건축문화유산 ▲문화재 ▲농정 ▲인물도모형 ▲전설 ▲시비 ▲음식문화 등 8종의 지도가 개발돼 광주의 과거와 현재를 두루 살필 수 있도록 했다.

재단은 22일 광주시교육청과 기증식을 갖고 책을 각 초·중·고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웹툰책은 국립도서관과 각 구청 주민센터, 문화기관 등에서도 만날 수 있다.

'광주 역사문화자원 웹툰100', '광주 역사문화자원 100 상·하권', '역사문화지도 8종' 등은 광주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누리집에서 JPG·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 062-234-2727.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미인도와 벨라스케스'

동분서주 이이남

내일 'LA아트쇼' 이어 네덜란드·임정 100주년전 등 앞뒀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가 올해도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다. 이 작가는 23일 개막 파티와 함께 열리는 '2019 LA아트쇼'에 참가를 시작으로 올해도 국내외 굵직한 전시에서 작품을 선보인다.

먼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초청받은 이 작가는 오는 28일까지 5일간 LA컨벤션 센터 웨스트홀에서 열리는 미 서부 최대 미술제 'LA아트쇼' VIP 메인부스에서 대표작 '만화병풍II-상상된 경계' 등 세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에는 20개국에서 100여개 갤러리가 참여하며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는 작가들도 작품을 출품한다.

겸재 정선과 강세황의 고전회화를 한 폭의 병풍으로 연출한 '만화병풍II-상상된 경계'는 분단된 남·북한의 경계를 배경으로 국가, 이민자, 소수민족, 인권, 예술 등 다양한 현대사회의 이슈들을 산수화 속에

담아냈다. 또 다른 작품 '미인도와 벨라스케스'는 신윤복의 '미인도' 속 주인공과 벨라스케스의 작품 속 인물이 서로 옷을 바꿔 입고 있다. 이 작가는 옷이 바뀌는 것은 단순한 이미지 교차를 넘어 문화의 소통을 의미하며 동서양이 크로스오버되는 모습을 담고 있다고 말한다.

그밖에 '모나리자 페허'는 다빈치의 '모나리자'와 폭탄, 꽃 등을 배치해 새로운 가치와 문화가 탄생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이 작가의 행보는 올해 세계 곳곳으로 이어진다. 네덜란드 전시를 시작으로 프랑스 보르도와 파리, 베니스 비엔날레, 사라예보, 아르헨티나, 중국 베이징과 청도에서 전시가 열리며 위안부의 날 국회 특별전,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전 등에도 참여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국 혁신가들 31일 완도서 토론회

전국의 지역 혁신가들이 모여 토론하는 행사가 완도에서 열린다.

지역 혁신가와 예비 혁신가, 그리고 잠재적 혁신가가 참여할 수 있는 '완도 윈터랜드-혁신가들의 여행'이 오는 31일 오후 7시 동내책방 완도살롱(장보고대로248번길 48)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하는 '제이커넥트데이(J-Connect Day)'의 하나로 마련됐다. 센터는 국내

외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지역혁신가를 한자리에 모아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 혁신창업생태계를 만들고자 이 같은 행사를 기획했다.

행사는 '혁신가들의 여행' 소개, 지역 혁신가 활동 소개, 질의 응답 및 자유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참가비 1만원이며 구글 폼(goo.gl/qStkHm)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10-3311-3218.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방수

특허공법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주목!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6년무상A/S/정기점검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한국 미국 독일 캐나다 덴마크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